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Music Biz Weekly Brief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9호

2009.2.6~2009.2.12

I . Analysis Overview 1

II . 국내 동향 4

1. 산업정책 및 제도 4
2. 음악업계 동향 7
3. 소비자동향 9
4. 언론동향 13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7

III . 해외 동향 18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8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21

I. Analysis Overview

I. Analysis Overview 1

II. 국 내 동 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김평수 연구원] 4

1-1. 문화부, 2007년도 문화산업 통계조사 발표 4
 우리나라 문화산업 58조원 규모, 연평균 7.31%의 꾸준한 증가세에 고용도 46만 명으로 5%↑, 음악산업은 1.4% 감소

1-2.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준비 본격화 5
 콘텐츠 관련 5개 기관 통합...9일 설립위 발족
 정책 자문단을 통한 면밀한 분석자료와 기업의견 반영한 비전 마련 예정

1-3. 저작권위원회, 중국 현지 저작권 법률컨설팅 서비스 개시 6
 오는 2월 12일부터 저작권위원회가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개시.

2. 음악업계 동향 [김훈 연구원] 7

2-1. 엠넷미디어, 日 음악시장 `베스트 파트너` 급부상 7
 엠넷미디어가 일본 음악 시장의 주요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형 기획사 및 음반사로부터 협력제안 넘쳐

2-2. 오디즌, '멀티 뮤직 솔루션 기술 뮤직2.0' 해외 라이선스 추진 7
 오디즌 음악솔루션인 '뮤직2.0'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해외 주요 음반사 및 서비스업체와 협의

2-3. 마크애니, 저작권보호 필터링 서비스 사업화 8
 마크애니는 2월 9일부터 160만곡의 음악과 1만 건의 영화에 대한 동영상 및 음원DNA필터링 사업을 시작

2-4. 비, 美 상표권 분쟁 합의 8
 미국에서는 '더 레인(The Rain)'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하기로 미국 음반 기획사인 레인 코퍼레이션(Rain Corporation)과 상표권 분쟁을 마무리

2-5. 기타 단신 등 9
 - 워밍업 끝 빅뱅 "올해 열도 대폭발"... 유니버설뮤직과 음반발매 계약
 - 6인조 남성그룹 유키스 "태국에서 인기"
 - 히트상품 '빅뱅' 만든 양현석 YG 대표

3. 소비자 동향 [서상아 연구원] 9

- 3-1. 올해 들어 최저의 음반 판매량** 9
 음반 판매량이 점점 하락하면서 차트 내의 움직임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저조한 성적. 몇몇의 신보 음반들이 출시되었으나 상위권 순위는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하위권 음반의 경우 오래 전 발매된 음반들이 대부분.
- 3-2. 그야말로 소녀시대** 13
 연속 2주째 소녀시대의 <Gee>가 전 차트를 석권함과 동시에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인기 또한 계속. 또한 대성, Fly to the Sky, 보이스원 등의 신곡도 빠르게 차트 내로 진입.

4. 언론 동향 [박진석 연구원]..... 13

- 4-1. '꽃보다 남자' OST, 20억 매출 기록할까**..... 13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OST 매출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은 '꽃보다 남자' OST의 매출이 2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도레미레코드 측의 예상을 보도하면서 그 흥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 4-2. 엠넷미디어, 불법음원 단속 및 캠페인 확대** 14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엠넷미디어의 불법음원 근절 계획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기업들과 영상, 음원 DNA 필터링 시스템 공동 사업에 관한 제휴를 맺고 불법 음원 차단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4-3. 소리바다, 신규 음악 이용 요금제 선보인다** 15
 언론은 9일자 보도를 통해 음원 판매 사이트인 '소리바다'가 신규 음악 이용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보도했으며, 소리바다측은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는 음원 소비자들의 보다 실용적인 상품구매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4-4. 주요 단신** 15
 -클루넷, '음원 DNA 필터링 솔루션' 임대 서비스 출시
 -2007년 문화산업 매출 58조원...전년비 1.2% 성장
 -세븐-보아, 3월 美-日 음악시장 '동시 공략'
 -김연아 클래식 음반, 일본으로 수출된다

5. 행사 및 협회 소식 [장정희 연구원] 17

- 5-1. 음악사이트 멜론, '스위트 멜론타인데이' 이벤트 진행** 17
 음악사이트 멜론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스타 가수과 팬과의 만남 행사 '스위트 멜론타인데이'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5-2. 서울가요대상 원더걸스와 빅뱅이 최고** 17

'텔미', '노바디' 등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원더걸스가 '제1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빅뱅은 최다 수상을 차지

Ⅲ. 해 외 동 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고민정, 장정희]..... 18

1-1. NOKIA, 남아프리카에 온라인 음악 상점 오픈..... 18

2009년 4월 24일 오픈 예정. 이 상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Parletones, Goldfish, Arno Garstens 등의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수백만 개의 디지털 음원이 출시 될 예정.

1-2. 게임회사 Rockstar, iTunes와 협력 체결..... 19

게임회사 Rockstar가 다가오는 GTA4의 확장팩 출시를 위해 iTunes와 협력. 게임 내 가상 라디오 스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 하고, 또한 이 음원을 애플의 음악 상점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게임 음악 서비스

1-3. People's Music Store, 음악팬을 위한 서비스 개시..... 19

미디어 기업가인 Paul Higgins로부터 사업 기금을 지원 받고 Begger Group과 라이센스 협상. 이 사이트에서 블로거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음원 상점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25만개가 넘는 곡을 Begger의 목록이나 다른 독립 TV 방송국에서 가져와 개인 목록 만들기 가능

1-4. 대학을 대상으로 했던 Ruckus 디지털 음원 서비스 폐쇄..... 20

디지털 음원 발매에서 생겨난 손해를 대학에서 음원 판매를 통한 전략으로 극복하려 대학을 겨냥했던 Ruckus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몇 개의 서비스와 콘텐츠들을 출시했지만 실패하고 서비스를 폐쇄.

1-5. 주요 단신..... 20

- Spotify 서비스, 모든 영국인에게 개방
- Cricket Communications가 음악 서비스를 출시
- Warner Music이 주가 소득과 손실 공개

2.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고민정, 김평수]..... 21

2-1. SM 엔터테인먼트 태국 콘서트, 성황 21

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태국 방콕 라자만갈라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4만여 태국팬들의 열광 속에 성공적 공연 치러.

2-2. 유키스, 태국에서 인기 상승 21

6인조 남성그룹 유키스(U-Kiss)가 태국에서 발매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어리지않아(Not Young)'는 태국 각종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 상승.

Ⅱ. 국내 동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1-1. 문화부, 2007년도 문화산업 통계조사 발표

출판·음악·게임·방송 등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총매출액이 2007년 기준 58조6천1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출액도 전년보다 13.3% 증가한 15억5천539만 달러, 산업 종사자수도 5.1% 증가한 45만8천910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기준 '문화산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분야가 매출액을 비롯한 수출·고용 등 각 부문에서 최근 5년 연속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1998년 기준 이후 매년 실시해 온 '문화산업 통계조사'는 2003년 기준부터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이번까지 5회째 이르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산업 매출액은 2003년 44조1천956억원, 2004년 50조601억원, 2005년 53조9천481억원, 2006년 57조9천385억원, 2007년 58조6천147억원으로 연평균 7.31%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별도로 조사한 '온라인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 부문은 5조7,652억원으로 약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 5조3,834억원 대비 약 7.1% 증가한 수치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2007년 문화산업 총 수출액은 15억5천539만 달러로 2006년 13억7천315만 달러 보다 13.3% 증가했다.

대외 수출 역시 2003년 6억3천065만 달러, 2004년 9억3천936만 달러, 2005년 12억3천596만 달러, 2006년 13억7천315만 달러, 2007년 15억5천539만 달러로 연평균 25.3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3억4천740만 달러(25.07%), ▲중국 3억593만 달러(22.07%), ▲일본 3억5천140만 달러(25.35%), ▲동남아시아 1억7천103만 달러(12.34%), ▲유럽 1억1천715만 달러(8.45%), ▲기타지역 9천317만 달러(6.72%)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 종사자수는 2007년 45만8천910명으로 2006년 43만6천685명에서 5.1% 증가했다.

직무별로는 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산업 6개 분야 현황 조사 결과, 기타(유통)(36.1%), 제작(27.9%), 관리(19.9%), 마케팅홍보(8.5%), 사업기획(4.6%), 연구

개발(3.0%) 순으로 종사자가 많았다.

문화부는 문화산업 종사자수가 증가에 대해 ▲온라인게임 수출증가, ▲애니메이션 투자 및 수출 확대, ▲국내 캐릭터 인지도 상승, ▲에듀테인먼트 유료서비스 전환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문화산업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3조6천4억원, 부가가치율은 40.34%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출판이 가장 큰 8조9천49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송, 광고, 게임, 캐릭터산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문화산업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문화산업이 향후에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별 지형변화에 맞추어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실시되는 2008년 기준 문화산업통계조사는 영역이 확대된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조사 필요를 반영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이트]

문화관광부 올림소식 2009-02-10

1-2.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준비 본격화

콘텐츠 관련 5개 기관 통합...9일 설립위 발족
정책 자문단을 통한 면밀한 분석자료와 기업의견 반영한 비전 마련 예정

한국 콘텐츠정책을 이끌 통합 콘텐츠진흥기관 설립이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9일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4월 중 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김동욱 서울대 교수, 이장우 경북대 교수,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용찬 인터젠컨설팅 대표, 김재원 문화부 콘텐츠 정책관 등 총 5명을 설립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진흥원의 정관 등 조직설립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진흥원의 임원진 공모, 면접, 추천 결의 등의 선임사무를 맡게 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기관을 통합해 새롭게 탄생될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게임, 방송 등 주력 콘텐츠산업을 비롯해, 신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융합형 콘텐츠 등 콘텐츠 전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콘텐츠산업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자료를 마련하고, 여기에 기업의견을 더해 새로 출범할 진흥원의 비전과 역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사이트]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부처뉴스, 2009-02-09

1-3. 저작권위원회, 2009년 중국 현지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서비스 시작

2009년 2월 12일부터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2009년 중국 현지 저작권 전문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06.11.15.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공식 설립허가 비준)를 창구로 하며, 컨설팅 범위는 중국 현지 저작권 침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저작권 업체에 대한 법률 구제조치 및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관련 사항 등이다.

이 서비스는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협력체계로 진행되며, 특히 사안에 따라 중국 국가 및 지방 판권국 및 판권보호중심, 반해적판제보센터, 국제판권교역센터 등 중국 정부 및 전문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한국 저작권자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점에서 다른 법률서비스와 구별된다.

또한, 권리업계가 적극대응에 나서는 중요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경고서한 발송, 행정단속 신고, 소송 및 협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조치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한다. 실제 지난해 한국드라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한국 방송3사의 적극적 협력대응으로 중국 온라인 유통 중요 통신사 및 지역방송사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경고 법률 서한 18건을 발송한 결과, 중국 내 통신사 자체운영 사이트에서의 한국드라마 저작권 침해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았고, 중국 판권국 행정처벌 신고를 통해 한국드라마 불법 IP-TV 사이트 서버 폐쇄조치에 성공한 적도 있다.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고 합법 시장진출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저작물의 분야별 해외권리 정보의 구축 및 확인·홍보 채널 확보, △권리업계의 소송 기타 적극적인 침해대응 법률 구제조치 활성화가 절실하다.

- 중국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86-10-6501-5437)
- 동남아 저작권 컨설팅 : 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66-2-613-1722)
- 해외 저작권 기초 법률상담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관련사이트]

저작권 위원회 (www.koreacopyright.or.kr)

2. 음악업계 동향

2-1. 엠넷미디어, 日 음악시장 `베스트 파트너` 급부상

엠넷미디어가 일본 음악 시장의 주요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형 기획사 및 음반사로 부터 협력제안이 넘쳐나고 있다.

엠넷미디어는 지난해 여성 아이돌그룹 모닝구 무스메의 앨범 발매와 한국 단독 공연, 일본 최대 소속사 자니스 소속 카툰(KAT-TUN)을 한국시장에 데뷔시켰으며 올해에는 쿠라키마이 10주년 앨범을 출시할 예정이다.

엠넷미디어에 대한 일본음악시장 파트너들의 인기는 그동안 엠넷이 구축해온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강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엠넷은 뮤직포털, 방송, 공연 사업부 등이 연계되어 비즈니스를 형성하고 있어 엠넷과 손을 잡는 경우 한 번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능력은 그동안 국내 대형매니지먼트사 중심으로 한국 진출을 진행해 오던 일본 음악기업들이 엠넷을 사업파트너로 급부상 하게 만든 원인이다.

[관련기사]

엠넷미디어, 日 음악시장 `베스트 파트너` 급부상 [매일경제 2009.02.12]

엠넷, 일본 음악 시장 파트너로 급부상..."아시아 시장 넘버원 목표" [세계일보 2009.02.12]

2-2. 오디즌, '멀티 뮤직 솔루션 기술 뮤직2.0' 해외 라이선스 추진

음악솔루션 개발업체 오디즌은 '뮤직2.0'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해외 주요 음반사 및 서비스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뮤직2.0은 한국이 국제표준을 주도한 멀티 뮤직 솔루션 기술이다. 가수의 보컬 및 기타, 피아노 등의 악기소리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아카펠라와 같은 무반주노래, 악기별 연주곡, 또는 오케스트라로 들을 수 있으며, MP3변환기로 휴대용 기기에서 활용도 가능하다.

지난 1월에 개최된 미뎀 2009에는 뮤직2.0의 솔루션개발사인 오디즌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해외 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오디즌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해외업체에서 1/4분기까지는 두세 업체 이상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사이트 오디즌 <http://www.audizen.com/>

오디즌, '멀티 뮤직 솔루션 기술 뮤직2.0' 해외 라이선스 추진 [베타뉴스 2009.02.12]

2-3. 마크애니, 저작권보호 필터링 서비스 사업화

저작권 보호기술업체 마크애니는 2월 9일부터 160만곡의 음악과 1만건의 영화에 대한 동영상 및 음원DNA필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마크애니가 이번에 구축한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은 유무선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통을 추적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의 식별 정보(UCI)와 저작권관리정보(ICN)를 포함하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재생 시 이를 검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방송·연예 채널 등에서 제공하는 RMC(Ready Made Contents)의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해 차단하거나 합법화를 유도할 수 있다.

[관련기사]

마크애니 <http://www.markany.com/kor/index.asp>

마크애니, 저작권 보호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사업화 [전자신문 2009.02.10]

마크애니, 저작권보호 필터링 서비스 개시 네이버 [디지털데일리 2009.02.09] 외

2-4. 비, 美 상표권 분쟁 극적 합의

가수 겸 배우 '비'가 미국에서는 '더 레인(The Rain)'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기로 미국 음반 기획사인 레인 코퍼레이션(Rain Corporation)과 상표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비는 미국에서 배우로써는 레인, 가수로써는 더 레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 외 지역에서는 레인으로 활동한다.

지난 2006년 미국 네바다 주의 레인 코퍼레이션 측은 비가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레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연 및 상표권에 대한 '레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비, '레인' 상표권 갈등 해결...美 '더 레인' 활동 [OSEN 2009.02.11]

비, 상표권분쟁 합의...美서 가수 활동시만 '더 레인' [아시아경제 2009.02.11]

2-5. 기타 단신 등

○ 워밍업 끝 빅뱅 "올해 열도 대폭발"... 유니버설뮤직과 음반발매 계약

2007년과 2008년 '거짓말'과 '붉은 노을'로 한국 대중음악 정상에 올랐던 남성그룹 빅뱅이 2009년 목표로 일본시장을 택했다. 빅뱅은 최근 유니버설 뮤직과 음반발매 계약을 맺고 2009년 일본 메이저 시장에 도전한다.

[관련기사]

워밍업 끝 빅뱅 "올해 열도 대폭발"... 유니버설뮤직과 음반발매 계약 [스포츠동아 2009년 2월 10일]

○ 6인조 남성그룹 유키스 "태국에서 인기"

유키스 소속사 NH미디어 관계자는 8일 "태국 최대 음악채널 트루뮤직의 동명 프로그램 '트루 뮤직'에서 유키스의 데뷔곡 '어리지 않아'가 원더걸스의 '소 핫'과 10% 포인트 차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유키스 "태국에서는 원더걸스 보다 한수 위" [일간스포츠 - 2009년 2월 7일]

○ 히트상품 '빅뱅' 만든 양현석 YG 대표

대중문화 최고 인기상품인 '빅뱅'에 대한 양현석 YG 대표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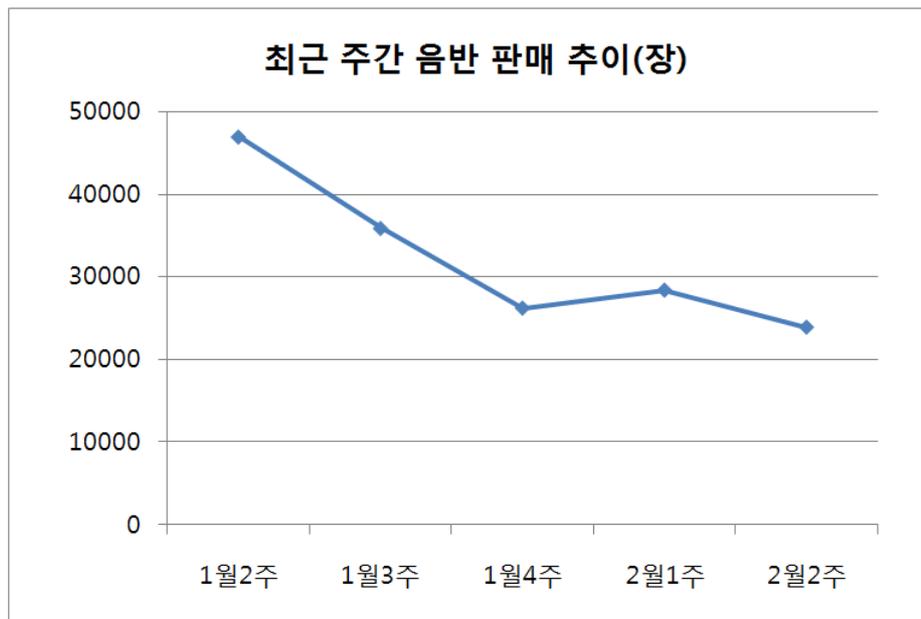
[관련기사]

[Culture] 히트상품 '빅뱅' 만든 양현석 YG 대표 [중앙일보 2009.02.09]

3. 소비자 동향

3-1. 음반동향 : 올해 들어 최저의 음반 판매량

2009년 2월 2주(2월 5일 ~ 2월 11일)의 음반동향은 지난주의 상승세를 뒤로 하고 다시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 같은 음반 판매 감소로 인해 이번 주 음반 판매량은 올해 들어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2월 5일 - 2월 11일)

지난 주 음반 차트의 경우 상위권에 랭크된 음반은 비교적 잘 나가는 양상을 보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주 음반 차트는 전반적인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위권 음반 역시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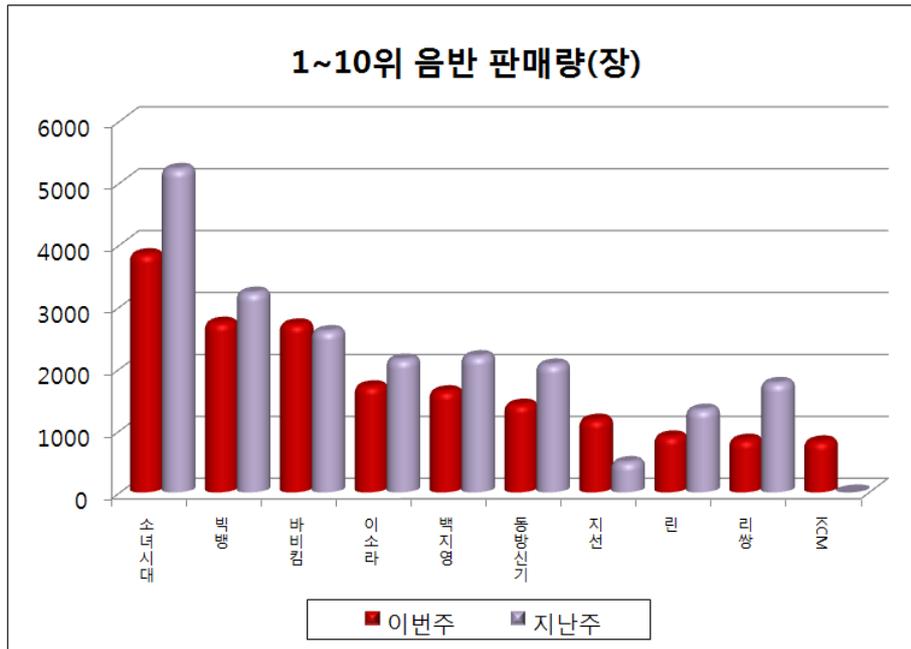
이 같은 부진한 판매량으로 이렇다 할 현상이 감지되고 있지 않은 금주 음반 차트는 기존의 상위권 음반과 신보 음반, 그 외 스테디셀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음반 판매량이 하락 할수록 차트 내 다양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차트의 상위권 음반들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소녀시대, 빅뱅, 바비킴 등이 1위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어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판매량이 하락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주 말미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지선의 앨범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KCM 역시 발매 초기 10위권에 진입하여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3847	5224	2009-01-07
2	-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2740	3226	2008-11-05
3	-	바비킴 / Special Album	도레미	가요	2713	2605	2009-01-12
4	▲1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1714	2,146	2008-12-17
5	▼1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1633	2,200	2008-11-14
6	-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1,417	2,065	2008-09-26
7	▲13	지선 1집 / 인어...집으로 돌아오다	엠넷	가요	1,174	489	2009-02-03
8	-	린 5집 / Let Go, Let In, It's A New Day	비타민	가요	904	1,336	2008-01-13
9	▼2	리쌍 5집 / 백아절현	엔티움	가요	850	1768	2009-01-09
10	진입	KCM 미니앨범 / Espresso	포이보스	가요	823	0	2009-02-03
11	▼1	정엽 1집 / Thinkin' Black On Me	엠넷	가요	796	823	2008-11-04
12	▼1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742	769	2008-09-30
13	진입	화요비 미니앨범 / This Is Love	로엔	가요	735	0	2009-02-06
14	▼5	카라 미니앨범 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634	931	2008-12-04
15	▲17	비 5집 / Rainism	엠넷	가요	607	405	2008-10-15
16	▲11	빅뱅 미니앨범 1집 / Always	엠넷	가요	553	435	2007-08-16
17	▲24	국카스텐 1집 / Guckkasten	엠넷	가요	526	200	2009-02-03
18	▲16	빅뱅 미니앨범 3집 / Stand Up	엠넷	가요	499	391	2008-08-08
19	▼2	이문세 / Memories	예전	가요	472	499	2004-05-21
20	▼1	빅뱅 1집 / Big Bang Vol.1	엠넷	가요	465	492	2006-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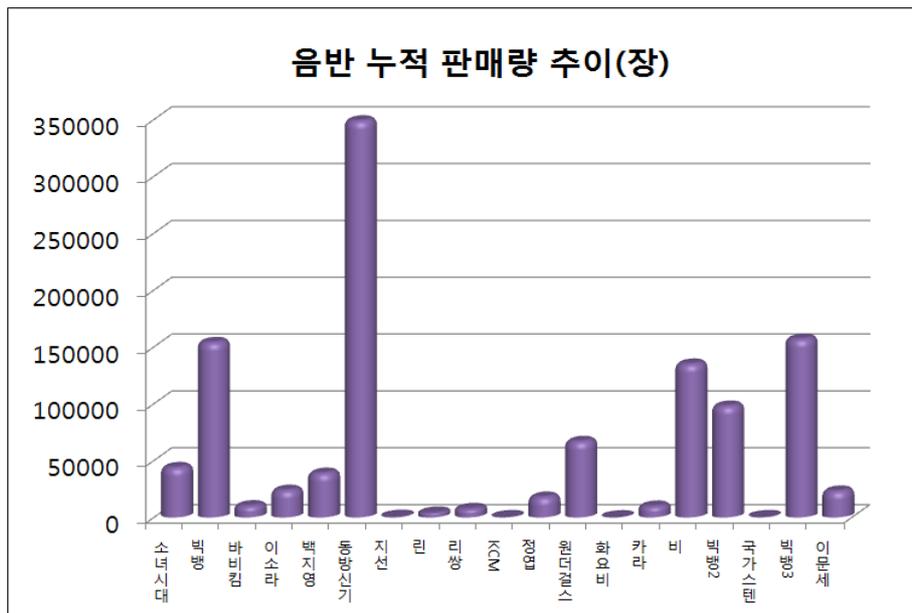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2월 5일 - 2월 11일)

하위권 음반 차트는 비, 빅뱅, 이문세 등 대부분 발매일이 오래 된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비는 최근 해외 활동을 알리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하락하던 음반 판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빅뱅의 경우 판매량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11위부터 20위 안에 3개의 앨범이 진입하고 있어 최근 가요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2월5일 - 2월 11일)

누적 판매량을 살펴보면 연일 하락하고 있는 음반 판매량으로 인해 동방신기가 35만 장의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다른 음반의 경우 빅뱅과 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2/7일, 단 이문세 앨범의 경우 08년 1월 5일부터 09년 2월 7일까지)

2월 2주의 음반동향 차트는 판매량이 점점 하락하면서 차트 내의 움직임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상위권 순위는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하위권 음반의 경우 최근 발매된 음반의 활약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이제 막 시장으로 나온 신보 앨범들의 추후 판매 양상이 좋아지기 바랄 뿐이다.

3-2. 음원동향 : 그야말로 소녀시대

2월 2주의 음원동향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 번 소녀시대가 전 차트를 석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소녀시대의 전 차트 석권은 2주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산 3번째 발생한 일이다.

이 같은 소녀시대 <Gee>의 독주 속에서 상위권의 경쟁도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전히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O. S. T 중 <내 머리가 나빠서>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신곡들이 발표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월 1일까지 계속되었던 빅뱅의 콘서트 전 이벤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성의 디지털 싱글 트로트 <대박이야>가 차트 내로 진입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첫 트로트 <날 봐, 귀순>에 이은 두 번째 트로트 곡인 이 곡은 같은 그룹 내 멤버 승리의 <Strong baby>와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한 Fly to the Sky의 <가버려 너>와 보이스원의 <못난 내 사랑> 등이 사이트 별로 차이는 있지만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위권에서는 T, 가비엔 제이, 린, 바비킴 등이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월 내내 중상위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카라의 <Pretty Girl>과 케이윌의 <러브119> 등의 곡은 서서히 순위가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의 음원 차트의 경우 개별 사이트의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기 보다는 앞서 말했던 대성, Fly to the Sky 등의 신곡이 모든 차트 내로 진입하면서 1월 중순 이후 뜸했던 신곡들의 강세가 다시금 감지되고 있다.

금주 음원 차트는 연속 2주째 소녀시대가 전 차트를 석권하면서 <Gee>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인기 또한 계속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이 같은 강자들 속에서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한 신곡들의 활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궁금해지는 한 주이다.

순위	박스 1/29 ~ 2/4	엠넷 2/2 ~ 2/8	도시락 2/2 ~ 2/8	멜론 2/1 ~ 2/7
1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2	대성 / 대박이야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3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동방신기 / 주문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4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티 / 떠나지마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김경록 / 이젠 남이야
5	티 / 떠나지마	보이스원 / 못한 내 사랑	대성 / 대박이야	티 / 떠나지마
6	린 / 사랑 다 거짓말	김경록 / 이젠 남이야	티맥스 / 파라다이스	린 / 사랑 다 거짓말
7	티맥스 / 파라다이스	티맥스 / 파라다이스	애프터스쿨 / AH	케이윌 / 러브119
8	백지영 / 입술을 주고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티 / 떠나지마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9	이승철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동방신기 / 주문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카라 / Pretty Girl
10	애프터스쿨 / AH	린 / 사랑 다 거짓말	썸데이 / 알고있나요	애프터스쿨 / AH
11	바비킴 / 사랑 그 놈	썸데이 / 알고있나요	린 / 사랑 다 거짓말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12	썸데이 / 알고있나요	이승철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김경록 / 이젠 남이야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13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대성 / 대박이야	바비킴 / 사랑 그 놈	빅뱅 / 붉은 노을
14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애프터스쿨 / AH	보이스원 / 못한 내 사랑	티맥스 / 파라다이스
15	김경록 / 이젠 남이야	바비킴 / 사랑 그 놈	카라 / Pretty Girl	럼블피쉬 / 비와 당신
16	카라 / Pretty Girl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샤이니 / Stand by me	SS501 / U R Man
17	보이스원 / 못한 내 사랑	케이윌 / 러브119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대성 / 대박이야
18	태군 / Call Me	SS501 / U R Man	케이윌 / 러브119	바비킴 / 사랑 그 놈
19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백지영 / 입술을 주고	KCM / 멀리있기	린 / 매력쟁이
20	케이윌 / 러브119	카라 / Pretty Girl	쥬얼리스 / 니가 더 좋아	샤이니 / Stand By Me

4. 언론 동향

4-1. '꽃보다 남자' OST, 20억 매출 기록할까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OST 매출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은 '꽃보다 남자' OST의 매출이 2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도레미미디어 측의 예상을 보도하면서 그 흥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도레미미디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꽃보다 남자' OST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이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드라마의 성공과 그에 따른 OST매출의 상승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지 밝혀주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음악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OST의 흥행이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음악시장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두 문화콘텐츠 산업의 연계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한편 2002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도레미미디어는 '꽃보다 남자' OST의 성공으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1일자 기사 참조)

도레미미디어 측은 "그동안 히트 음원 부재로 부진한 실적을 지속했는데, '꽃보다 남자' OST를 기반으로 해서 음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음원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 '꽃보다 남자' OST, 20억 매출예상 [동아일보 2009-02-11]
- '꽃남'이 회사 살린다?...도레미미디어 [한국경제 2009-02-11]
- '꽃남', 한 달 새 음반-음원 수익 15억 '대박' [스타뉴스 2009-02-11]
- '꽃남', OST로 20억 원 매출 예상 [아시아경제 2009-02-11]

4-2. 엠넷미디어, 불법음원 단속 및 캠페인 확대

엠넷미디어가 음악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 음원 단속 및 캠페인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넷미디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불법음원근절운동(불끈운동)을 펼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움직였으며 여전히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엠넷미디어의 불법음원 근절 계획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기업들과 영상, 음원 DNA 필터링 시스템 공동 사업에 관한 제휴를 맺고 불법 음원 차단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음원 200만개 이상의 특정 정보를 제휴 업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정보를 통해 불법음원의 유통 경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추적,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과 함께 그동안 펼쳐온 '불끈 운동'도 확대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이것은 한국음악 산업에서 엠넷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음악시장에 비교적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음원 근절이 음악시장의

불황을 타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법무부가 주관하고, 7개 대형 포털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 페이지 "Let's Clean UP!" 이 11일 오픈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인조 남성그룹 'FT아일랜드'가 불법 음원 때문에 온라인 음원 공개 일정을 앞당겼던 사례가 있듯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인다.

[관련기사]

- '불끈운동' 불법음원 차단시스템 도입 [뉴시스 2009-02-06]
- 엠넷미디어, 불법 음원 발본색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09-02-06]
- 저작권 보호 'Let's Clean UP!' 캠페인 시작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9-02-10]
- FT아일랜드, 음원불법유출에 공개일정 앞당겨 [스타뉴스 2009-02-10]

4-3. 소리바다, 신규 음악 이용 요금제 선보인다

'소리바다'가 신규 음악 이용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소리바다측은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는 음원 소비자들의 보다 실용적인 상품구매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기존의 시스템 즉, 이용권을 구입하게 되면 다운로드와 음악감상(스트리밍)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제도에서 벗어나 두 가지를 분리 제공함으로써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으로, 선택에 따라 실속 있는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운로드 40'은 월 5000원으로 DRM이 없는 MP3 파일을 40곡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 150'은 9000원으로 150곡을 받을 수 있고, 스트리밍 음악 감상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무제한 음악 감상 이용권'은 월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소리바다, 음악이용 상품 3종 [서울경제 2009-02-09]
- 소리바다, 새로운 음악 이용 요금제 3종 선보여 [아시아경제 2009-02-09]
- 소리바다, 가격내린 요금제 3종출시 [머니투데이 2009-02-09]
- 소리바다, 신규 '음악이용 요금제' 3종출시 [이데일리 2009-02-09]

4-4. 주요 단신

○ 클루넷, '음원 DNA 필터링 솔루션' 임대 서비스 출시

CDN서비스 전문기업인 클루넷(공동대표 강찬룡, 김대중 www.clunet.co.kr)은 첨단 저작권보호 기술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ASP형 임대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클루넷, '음원 DNA 필터링 솔루션' 임대 서비스 출시 [디지털데일리 2009-02-11]

○ 2007년 문화산업 매출 58조원...전년비 1.2% 성장

국내 문화산업 매출액이 2007년 58조6천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57조9천385억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관련기사]

2007년 문화산업 매출 58조원...전년비 1.2% 성장 [아이뉴스24 2009-02-09]

○ 세븐-보아, 3월 美-日 음악시장 '동시 공략'

한국과 일본에서 이미 인기몰이 한 국내 톱 가수 보아와 세븐이 오는 3월 세계 최대 대중 음악 시장들인 미국과 일본을 동시 공략한다. 이는 당초 이달 14일 미국에서 현지 데뷔곡 '걸스'(Girls)를 선보일 예정이었던 세븐이 '걸스' 공개를 오는 3월로 늦췄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세븐-보아, 3월 美-日 음악시장 '동시 공략' [스타뉴스 2009-02-11]

○ 김연아 클래식 음반, 일본으로 수출된다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는 5일 "지난해 12월9일 발매된 김연아 선수의 경기 출전 배경음악들을 모은 'Fairy On the Ice'가 일본에 대량 판매됐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측은 유니버설 뮤직 재팬 측에서 김연아 앨범을 수출해 줄 것을 요청, 지난 2일 약 5000여장을 일본에 보냈다.

[관련기사]

김연아 클래식 음반, 일본으로 수출된다 [머니투데이 2009-02-05]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음악사이트 멜론, '스위트 멜론타인데이' 이벤트 진행

음악사이트 멜론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스타 가수와 팬과의 만남 행사 '스위트 멜론타인데이'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남녀 가수 5팀 중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선택해 친구에게 추천하거나 곡을 다운로드 받으면 점수를 부여하며, 누적점수를 기준으로 1위를 선정한다.

행사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이어 14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관련기사]

멜론, 밸런타인데이 맞아 팬미팅 마련 네이버 연합뉴스 2009.02.10

관련사이트 http://www.melon.com/svc/event/2009Melontine/eventMain.jsp?MAIN=MAIN_1EV

5-2. 서울가요대상 원더걸스와 빅뱅이 최고

'텔미', '노바디' 등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원더걸스가 '제1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빅뱅은 최다 수상을 차지했다.

■수상자 명단

▷대상 = 원더걸스

▷본상(10팀) = 백지영 김종국 브라운아이드걸스 동방신기 빅뱅 손담비 장윤정 SG워너비 원더걸스SS501

▷신인상(3팀) = 샤이니 다비치 마이티마우스

▷최고앨범상 = 빅뱅

▷한류상 = SS501

▷성인가요상 = 박현빈

▷모바일인기상 = 동방신기 빅뱅

▷하이원뮤직상 = 빅뱅

▷디지털음원상 = 원더걸스

▷공연문화상 = 김장훈

▷YTN STAR상 = 백지영

[관련기사]

원더걸스 서울가요대상 '대상' 수상 '감격의 눈물' [아시아투데이 2009.02.12]

Ⅲ. 해외 동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1. Nokia, 남아프리카에 온라인 음악 상점 오픈

Nokia가 남아프리카에 온라인 음악 상점을 출시하려 하고 있다. 이 가상세계의 상점은 2009년 4월 24일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상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Parletones, Goldfish, Arno Garstens 등의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수백만 개의 디지털 음원이 출시 될 예정이다.

Nokia의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음악 담당인 Jake Rarson의 말에 따르면, 이 상점은 팝이나, 비주류 음악, 독립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를 취급하며, 더 중요한 것은 남아프리카 출신의 아티스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Nokia의 음악 상점은 음원 검색이나 개인적인 곡 추천 같은 다양한 상호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Jake Rarson은 말했다.

남아프리카의 음악 애호가들은 자신의 컴퓨터나 다양한 Nokia의 기기들을 통해 상점에 접속할 수 있고, 이러한 기기 중에 몇몇 기기들은 PC와 보다 더 많은 연동이 가능하다.

또한 음악 상점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완전한 한곡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돕고, 개인 취향의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또한 원하는 음악의 목록을 만들어 나중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구매한 곡들은 PC를 통해 Nokia의 기기들로 옮길 수 있으며, 음원은 CD로 복사는 물론, 다른 디지털 음원 재생 장치에서도 재생 가능하다.

이러한 음원은 신용카드, 상품권과 같은 다양한 지불 방법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월 정액제를 통해 무제한 음원 재생 또한 가능하다.

남아프리카는 Nokia의 음악 상점이 출시되는 15번째 국가이다. 최근에 Nokia 음악 상점은 오스트리아, 멕시코,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등에 출시되었다.

[관련기사]

Nokia to open music store in SA, Bizcommunity.com, South Africa, 2009-02-10

1-2. 게임회사 Rockstar, iTunes와 협력

게임회사 Rockstar가 다가오는 GTA(Grand Theft Auto)4의 확장팩인 The Lost and Damned의 출시를 위해 iTunes와 협력한다. 다운 가능한 이 콘텐츠는 게임 내 가상 라디오 스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 하고, 또한 이 음원을 애플의 음악 상점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다시 말해 GTA 4라는 혁신적인 게임 내에 음악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내의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현실세계의 휴대 전화를 들고 ZIT-555-0100에 전화를 하면 문자 메시지로 그 노래 제목과 가수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Rockstar Social Club에 가입했다면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자동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Amazon.com에서 그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주소도 받는다.

GTA 4의 확장 팩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적용된다. 하지만 Amazon 대신 애플의 iTunes Store의 주소를 받게 된다.

Rockstar는 왜 Amazon에서 iTunes로 이동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애플의 DRM-free 정책의 효과 때문이거나, 캐시 제도를 통한 iTunes의 사용자층이 더 두텁기 때문일 것이다.

GTA 4의 첫 번째 확장 팩은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17일에 출시된다.

[관련기사]

Rockstar ditches Amazon, goes with iTunes for music partnership, Examiner.com, 2009-02-10

※ GTA 4는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시리즈 게임. PS3, XBOX 360 등 콘솔게임뿐 만 아니라 PC로도 가능하며 게임의 자유도가 높아 인기가 높다. (편집자 주)

1-3. People's Music store, 음악 팬을 위한 서비스 개시

영국의 People's Music Store는 미디어 기업가인 Paul Higgins로부터 사업 기금을 지원 받고 그와 동시에 Begger Group과 라이선스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음원 상점 사이트를 개설 할 수 있고, 25만개가 넘는 곡을 Begger의 목록이나 다른 독립 TV 방송국에서 가져와 자신만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미 개설 된 650개의 온라인 상점과 함께 시작한지 몇 달 되지 않았다. 이 회사는 Warp Films와 음원 상점 Bleep.com의 설립자인 Ged Day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각각의 가게 주인은 어느 밴드의 음악을 팔고 그것을 어떻게 판매할지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리뷰를 쓰거나 자신의 블로그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프로필에 이 앨범을 추가할 수도 있다.

메인 홈페이지는 모든 상점들에서 인기 있는 음악들로 장식되고, 가게 주인들은 판매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Ged Day는 열광적인 팬들의 평가가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 강력하다고 말한다. People's Music Store는 팬들에게 자신들의 온라인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광고 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이 사랑하는 음악에 대해 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것이 진정으로 온라인 음원을 발견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s Music Store는 날카로운 음악 팬이나 블로거들을 위한 서비스의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주요 음반 회사들은 아무런 수익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관련기사]

People's Music Store announces funding and Beggars Group deal, Music Ally, UK, 2009-02-09

1-4. 대학 대상으로 했던 Ruckus, 디지털 음원 서비스 폐쇄

음원 시장의 공략 방법으로 대학을 겨냥했던 Ruckus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별다른 공지 없이 문을 닫았다. 몇 개의 서비스와 콘텐츠들을 출시했었던 이 회사는 디지털 음원 발매에서 생겨난 손해를 대학에서 음원을 판매함으로써 메우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폐쇄하게 되었다.

Ruckus는 대학생들에게 합법적인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를 제공 했고, Ruckus의 다양하고 많은 노래들은 iTunes같이 요금 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오직 대학 이메일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iPod나 CD같은 장치로 곡을 옮길 수는 없었다.

Tech Crunch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Sony와 UMG(Universal Music Group)의 합작 회사인 Total Music이 Ruckus를 합병했고, Total Music은 Ruckus가 운영되는 동안 후불제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협상의 일부였던 사용자 데이터와 수입을 공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Ruckus Shuts Down, Total Music in Question, Billboard Business News, 2009-02-09

Ruckus shuts down: Another blow to college students, WalletPop, VA, 2009-02-09

1-5. 주요단신

○ Spotify가 모든 영국인에게 개방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PC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Spotify가 모든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Spotify는 스트리밍 서비스 허가 과정에서 어떤 콘텐츠를 삭제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 음반 회사와의 오해로 몇몇 문제들이 있었으나, 결국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Spotify available to everyone in the UK, Pocket-lint.co.uk, UK, 2009-02-10

○ **Cricket Communications가 음악 서비스를 출시**

저가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Cricket Communications가 네트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one stop shop'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음원 구매 사이트를 출시했다. 고객들은 사이트에서 음원을 구매하여 그들의 휴대 전화나 컴퓨터에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관련기사]

Cricket Communications Launches Music Service, Washington Post, US, 2009-02-10

○ **Warner Music이 주가 소득과 손실 공개**

음악 업체들과 음반 출판사들이 첫 재정 1/4분기 동안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 Warner Music Group의 주식 가격이 목요일에 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주가 상승은 CD 판매 하락과 느려진 디지털 성장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County Seeks To Limit Ice Cream Truck Music, KXNT, NV, 2009-02-03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SM 엔터테인먼트 태국 콘서트, 성황

지난 6일 오후 6시 태국 방콕 씨암 센터 야외 파크에서 열린 'SMTOWN LIVE 08 in BANGKOK' 기자회견에서 몰려드는 13,000여명의 태국팬들 때문에 바리케이트가 무너질 뻔 하는 등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지 70여개 유명 언론매체도 취재 경쟁이 붙어 SM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들의 인기를 실감케 하기도 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태국 방콕 라자만갈라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에는 4만 여명의 태국팬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방콕 공연을 끝으로 아시아 3개 도시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관련기사]

'SM 타운' 태국 입성, 1만 3000여팬들 열광의 도가니, 아시아경제, 2009-02-07

SM 태국콘서트, 태국팬 몰려 바리케이트까지 무너질 뻔...대단한 한류!, 투데이코리아, 2009-02-08

4만명 태국팬들, 'SM 패밀리에 열광', 매일경제, 2009-02-08

동방·슈주·소시·샤이니..태 4만팬 홀리다, 스타뉴스, 2009-02-08

2-2. 유키스, 태국에서 인기 상승

6인조 남성그룹 유키스(U-Kiss)가 최근 태국에서 한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키스는 지난 12월 25일 태국에서 발매한 첫 번째 미니 앨범 'N-Generation' 타이틀곡 '어리지 않아(Not Young)'는 태국 각종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모았다.

유키스의 소속사 측은 "유키스의 태국 라이선스 앨범 발매는 태국의 대표적인 음반사 그래미 뮤직(이하 GMM)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태국에 진출하지 않은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유키스는 타이틀곡 '니가 좋아'로 활동 중이며 6일 방송되는 KBS '뮤직뱅크'에서도 '니가 좋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유키스, 태국 '트루뮤직'서 원더걸스 제치고 1위, 스타뉴스, 2009-02-08

유키스, 태국 음악프로서 원더걸스 제치고 1위 '눈길', 마이데일리, 2009-02-07

유키스, 태국 한류 '원더걸스와 동급', 매일경제, 2009-02-06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팀장 이동주 (Tel. (02)2016-4010)

과장 김도윤 (Tel. (02)2016-4091)